

(韓国・朝鮮語)

高齢者への配慮について

고령자를 배려에 대해서

대피소 안은 좁고, 통로를 만들 공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.

고령자를 배려해 ‘움직이지 마세요’, ‘저희가 할 테니 앉아서 쉬세요’ 라고 친절하게 말을 걸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.

그러나 고령자는 ‘움직이기 힘든’ 상황에서 ‘움직이지 않고 있다’ 면 ‘움직이지 못하게’ 될 수도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대피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합시다.

- 그만 눕고 싶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담요를 개어 놓읍시다.
- 대피소 안에는 다니기 편하도록 통로를 만듭시다.
- ‘대피 생활이니까’ 라고 해서 사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도록 합시다.

대피 생활을 할 때는 안정을 취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.